

# 황남의 대지를 적시는 고마움의 눈물바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몸소 준비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가족들이 성의껏 마련한 의약품들을 받아안은 황해남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고있다.



###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내고 울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정에서 몸소 준비하여 보내주신 귀중한 상비약품과 의약품들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집안 식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어서 인민사수, 인민보위전의 최전방에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부모는 일찌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혼자몸인 제가 외로워할새라 친혈육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던 다정한 이웃들과 기업소 종업원들의 방조를 받으며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열로 고통을 겪고보니 세상을 떠난 어머니 생각이 왜 그렇게 나던지... 불면 날가 쥐면 겨질가 애지중지하며 온갖 정을 다 부여주던 어머니, 감기로 기침이라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외진 한끝에 사는 나에게도 차례질 줄이야...

제가 살고있는 교장은 우리 조국의 서남단, 크고작은 수십개의 섬들이 울방울방울 떠있는 강령반도의 한끝 등산곶포구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주민이라야 몇세대 되지도 않습니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의 한끝에서 사는 우리들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로 엄격한 격폐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어느덧 10여일이 흘렀다. 류다르게 흘러가는 이 땅의 5월이다. 예상치 않았던 엄혹한 비상방역 상황속에서 누구나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있는 이 5월에 때없이 나는 자주 뜨거웠음을 삼키곤 한다. 평소에는 한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한 복도에서 출입문을 맞대고 살면서조차 미처 다 몰랐던 아름다운 인간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더 활짝 꽃피어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눈물겨운 미담들을 체험하면서이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전 이른아침이었다. 전화소리가 울려 송수화기를 드니 인민반장의 귀에 익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동봉사대에서 열매같은 부식물을 보내왔는데 식구가 많은 우리 집에서 먼저 받으라는 것이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정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에 가슴이 후터워왔다. 허나 우리보다 더 곤난한 세대도 있지 않는가. 나는 안해와 의논하고 부식물을 인민후방가족인 옆집에 먼저 보내주라고 인민반장에게 말했다. 얼마 안있어 또다시 전화소리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드니 이번에는 열정 안주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인즉 처음에 인민반장이 자기한테 전화해 줄여 부식물을 먼저 받으라고 권하기에 늙은이내외끼리 사는 1층 3호세대에 먼저 보내주라고 양보했었는데 결국은 온 인민반을 들고돌아다시금 자기 집으로 전화가 되걸려왔다는 것이 아닌가. 뭔가 몽글 몽글이 눈물이 흐를라 나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자기 집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후더운 인정, 남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만 가슴뭉뚱이 안아 붙수 있는 미덕의 향기...

정말이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의약품들이야말로 물에도 꽃을 피우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폐된 때로부터 어느덧 10여일. 약성비투스의 류입과 전과 공간을 완전차단하기 위해 방역초소들이 대폭 증설되고 단위와 지역별로 허점과 빈틈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집중전개되고 있는 속에 공화국의 집집마다에서 자주 울리는 소리들이 있다. 《독특득!》, 《달랑, 딸랑!》...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 집주인을 찾는 소리이다. 문을 열고 내다보면 진로소의 호당당의 사들과 인민군군들의, 일군들과 인민반장들, 이동봉사대원들이 찾아와서 열이 나지 않는가, 필요한 약이 무엇인가, 식량과 부식물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자상히 물어보며 대책해준단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 뚝뚝이 울리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각지의 주민들이다. 지금껏 국가가 베푸는 사랑과 배려를 알게 모르게 많이도 받아온 공화국인민들이다. 그들이 받는 은정은 건국 이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의 엄혹한 방역위기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오히려 더욱 진하게 인민들의 생활속으로 파시며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8 000개의 각종 봉사대들이 조직되어 식량과 의약품, 기초식품, 1차소비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 전진 공급하고있으며 여기에 땅과

## 분투드리는 소리

분투드리는 소리는 집주인을 찾는 소리이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집집마다에 가닿는 소리이다. 어느 가정이나 할것없이 스며드는 따스한 사랑의 속삭임소리, 그 소리는 온 나라에 울리고 온 나라의 가정들을 포근히 감싸주고있다. 이처럼 공화국인민 누구나 한없이 위대하고 따뜻한 운명의 보좌자의 손길아래 산다. 어려울수록 인민들끼리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다가서시는 자애로운 평등자, 인민을 위해 겪는 고생을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행복으로 여기시며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도 난국을 역력히 헤쳐가고있으며 방역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해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에게는 시련의 광풍이 거세칠수록 더 뜨겁게 잡아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이 있다. 잊을수 없는 당찬건 75돌경축 열병식장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시는 정말 감동위기를 똑같이 겪으면서도 어찌하여 이 땅에서만은 이렇듯 관대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 것인가. 과연 공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드물지 않은 역설 믿음의 원천은, 모진 역경속에서도 만발하게 피어나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도 눈앞에 뜨겁게 안겨온다. 깊은 밤 평양시안의 약국들에 까지 나가서도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공급정형을 세세히 로해하시던 우리 아버지의 불타는 헌신의 그 영상이. 약성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약국에 서슴없이 들어서고 지침을 닦아 인민을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가 호느껴올었다. 결코 재난이나 폭정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진자불행은 어려울 때 잠을 손길이 없는 것이다.

정녕 이해의 5월은 뜨겁다. 우리 인민에게 부여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진할줄 모르는 정과 열로 분분초초가 흐르고있는데, 고마운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그리움속에 날과 날이 흘러가기에 류달리도 뜨거운 이해의 5월이다. 장수봉

정녕 이해의 5월은 뜨겁다. 우리 인민에게 부여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진할줄 모르는 정과 열로 분분초초가 흐르고있는데, 고마운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그리움속에 날과 날이 흘러가기에 류달리도 뜨거운 이해의 5월이다. 장수봉



정녕 이해의 5월은 뜨겁다. 우리 인민에게 부여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진할줄 모르는 정과 열로 분분초초가 흐르고있는데, 고마운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그리움속에 날과 날이 흘러가기에 류달리도 뜨거운 이해의 5월이다. 장수봉